

# “정답 못찾고 새천년 화두로”

## 돈오돈수 & 돈오점수

1981년 당시 조계종 종정인 성철스님이 <선문정로(禪門正路)>를 세상에냄으로써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논쟁은 사실상 시작됐다. 성철스님은 보조의 돈오점수가 선문에서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기능을 했다고 지적했다.

성철스님의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보조 국사의 돈오점수는 한국 불교의 정맥으로 수용되고 있었고, 성철스님의 돈오돈수는 조계종의 종조 문제들과 맞물려 쉽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래서인지 <선문정로>가 나온지 10년이 되는 1990년에 가서야 비로소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문제가 학술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이 주제에 대해 불교계 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졌다. 논쟁은 대개 세 갈래로 나뉘고 있다. 첫째 성철스님의 돈오점수에 대한 비판을 재비판하면서 돈오점수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보조사상연구회측의 입장을 들 수 있다. 두번째는 성철스님의 돈오돈수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해인종림속 스님들의 입장이다. 세번째로는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각각의 입장이 가진 근본 취지를 최대한 받아들여, 당면한 한국불교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삼고자 하는 박성배 교수의 ‘돈오돈수적 점수’설의 입장이 있다.

## 조계종 종조

조계종 종조논쟁은 이미 30, 4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불거졌지만 1954년 이승만대통령의 ‘불교정화(태고종에서는 법남으로 부른다)’유시 이후 본격화됐다. 30, 40년대의 종조논쟁이 도의 또는 법일 종조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정화 이후에는 태고 또는 보조 종조설이 중심이 됐다. 비구 대차 분류이전 조계종의 종조는 태고 보우스님이었으나 양측이 대립되면서 조계종은 보조 지불스님을, 태고종은 태고 보우스님을 새로 종조로 인정했다. 이후 종조논쟁은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팽팽한 긴장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종조논쟁의 쟁점은 한국불교 법맥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청허 휴정 스님의 법맥 해석문제. 휴정 스님의 법맥은 벽계 정심(碧溪淨心)→벽송 지엄(碧松智嚴)→부음 영관(芙蓉靈巖)을 이어받는다.

문제는 정심 스님의 법맥이 어디에서 이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정심 스님은 입적에 앞서 “내 법사가 환속했으므로 멀리 구국 각운(龜谷覺雲)스님에게 법을 이으라”고 했다고 전한다.

현재에서는 크게 각운 스님의 법맥이 보우→환암 혼수→각운→정심스님에게 이어졌다는 설과 각진 북구(송광사 13대 국사)→졸암 연운→각운→정심스님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김영수 선생이나 성철스님 등이 태고 종조설의 입장에 섰던데 반해 보조 종조

## 20세기 불교학술 논쟁 10

논쟁은 언쟁과 다르다.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논쟁 당사자 또는 그러한 논쟁을 낳은 사회의 지적 수준을 끌어 올리는 작업이다. 대부분 건설적인 논쟁들은 논쟁 주체들의 논지를 더욱 정교하게 할 뿐 아니라 제3의 논리를 낳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학문의 내공을 높이는 작업인 것이다.

새 천년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0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가 새 세기에도 화두로 남아 불교계의 사상적 깊이를 더해 줄 불교관련 학술논쟁들을 되짚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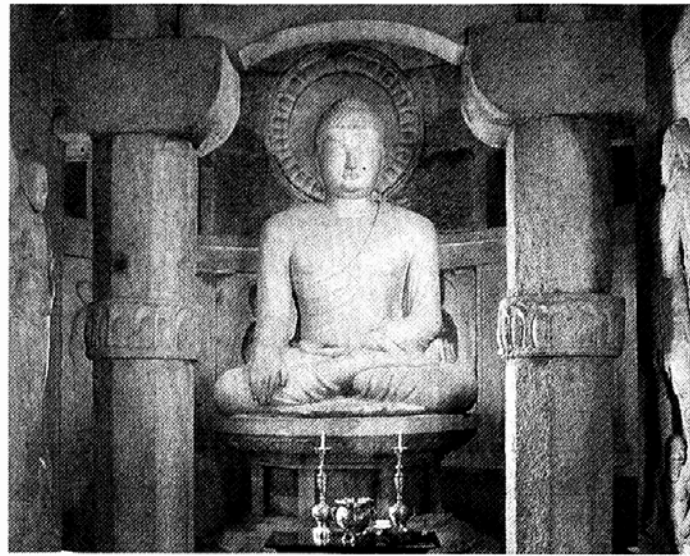
설은 능화와 이재열 이종익 선생이 옹호했다.

## 석굴암 원형 논쟁

1994년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돼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석굴암, 일제 강점기 때 잘못 복원된 원형 탓에 원형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석굴암에 대한 논쟁은 지난 1969년 5월 물리학을 전공한 공학박사인 남천우 교수가 <선동아>에 ‘석굴암 원형 보존의

에 인공의 흔적이 뚜렷하며, 십자의 중앙 부분 돌 밑에 길이 3.7m, 폭 2.6m, 폭 1.45m의 개석이 놓여 있어 이 개석 밑에 남굴장치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때부터 황수영 박사는 옛기록에 장골과 산골을 구별하고 있는 점을 봐서 산골처가 아니라 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표 당시부터 반론이 적지 않았다. 이 논란이 다시 일반에 알려진 것은 94년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물결이 인공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는 1천3백년이 지난



◇석굴암 원형 보존인가, 개작인가? 일제 강점기때 훼손된 석굴암의 복원을 둘러싸고 석굴암 원형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조계종 종조 태고說-보조說 ‘팽팽’ 석굴암 복원 과연 원형훼손인가

위기를 기고하면서 시작했다. 남 교수는 기고문에서 1967년 황수영 박사의 주도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석굴암에 대해 ‘광창설’ 등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며 ‘당시 석굴암 보수는 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신영춘씨가 ‘석굴암은 결코 개작이 아니다’라는 반박문을 발표하고 뒤이어 문명대 교수가 가세하면서 석굴암 원형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그러나 당시 남천우 교수가 비전공자라는 불리점을 극복하지 못해 논쟁은 잠시 수그러드는듯 했다.

그후 30년이 지난 1994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저자 유홍준 교수가 남천우 교수의 주장을 다시 거론하면서 석굴암 복원은 문제가 있으며 지금의 석굴암은 ‘황굴암’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해 다시 석굴암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소설가 성낙주씨가 1998년 <인물과 사상>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실으면서 석굴암 원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 대왕암의 실체

경북 경주군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에 떠 있는 대왕암은 문무왕의 수종릉인가, 아니면 문무왕의 뱃가마를 뿌린 산골처인가?

대왕암 논란이 불거진 것은 1967년 신라 유적조사를 벌인 신라오악조사단이 ‘대왕암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종릉’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조사단은 대왕암 가운데 십자형으로 물결이 나 있고 물결

## 한-중 최고 목관인쇄물 원조주장 일승법계도 저자 의상스님 맞나

리는 점을, 김수현 교수(원광대)는 <무구정광다라니>의 서체가 한국 전통서체를 증거로 들었다. 또 김성수 교수(청주대)는 경주 구황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외함(舍利外函)에 ‘무구정광을 함께 안치했다’고 새겨진 글씨와 석가탑 <무구정경> 권미제(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적은 글)의 글씨를 필적 감정의뢰한 결과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을 폈다.

## ‘어래장은 불교인가’

비판불교가 학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6년 6월1일, 일본에서 열린 인도학불교학회 학술대회에서다. 고마자와 대학의 마츠모토 교수가 ‘어래장은 불교가 아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것이다.

비판불교의 공통된 주장은 여래장·본각사상이 비불교적인 교설이고, 부처님이 비판했던 불교 이전의 자아설 즉 ‘일원론적 본질주의’에 가깝다는 것.

1994년 동국대 혜원스님이 마츠모토 교수의 <연기와 공-여래장사상 비판>을 번역한 <연기와 공>을 펴내면서 우리 나라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국내에 소개된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킨 비판불교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지금도 상반된다. 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는 “비판불교는 ‘불교의 근본정신이 무엇인지’를 비판적 시각으로 천착한다”며 “이러한 시각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것을 우리 불

교학계도 배울 필요가 있고, 학계에 반성의 계기도 제공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김성철(중앙승가대 강사)씨는 “비판불교는 학문적 사기”라며 “마츠모토는 자신이 만들어낸 dhru-vdara라는 환형과 싸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일승법계도 저자시비

‘일승법계도’의 저자는 누구인가. ‘일승법계도’의 저자는 의상이라고 확실한 고려시대 균여의 주장을 뒤집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면서 새 천년 학계의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1996년 중국학자 조장수가 중국 <방산석경>에 각인된 ‘일승법계도합시일인(一乘法界圖合詩一印)’의 발견자료를 근거로 ‘법성계’를 포함한 ‘일승법계도합시일인’, ‘서문’ 모두 지엄이 지은 것이라고 주장해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1997년에 오스트리아의 존 조르겐센(John Jorgensen)도 ‘반시(梵詩)’와 ‘서문’의 의상작인지 아니면 지엄작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주스님(동국대)은 한국 화엄사상의 뿌리를 뒤흔드는 주장이라며 98년 로잔과 일본 학회에서 조장수의 주장에 대해 9개 항으로 나눠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해주스님은 ‘일승법계’에 담긴 사상이 중국 지엄이나 법장의 사상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상세히 밝히고, 그 사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엄이 저자라는 주장을 일소할 계획이어서 그 연구 성과물이 주목된다.

## 무아설 & 비아설

원시불교에서 무아(無我)와 비아(非我)가 달리 서술되면서 무아설과 비아설을 각각 구분해 보는 학자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최근들어 불교의 ‘무아(無我)관’을 무아사상 혹은 비아(非我)사상, 혹은 인도의 자아(自我)사상의 일종으로 보려고 하는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원시불교에서의 아(我)와 무아(無我)에 대한 일견 모순되는 듯한 기술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아’라고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대표적 비아론자는 영국의 리스 데이비스(Rhys Davids)여사와 일본의 나가무라 하지메 박사 등. 반면 ‘원시불교에서 비아와 무아의 문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비아설을 무아설의 일환으로 본 정승석 교수는 “실천 수행 또는 교훈적 측면에서는 비아(非我)이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무아(無我)라는 식의 차별은 반드시 타당하지 않다”며 “서술상 다르게 표현될 지라도 그것이 지향하는 의미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 의천스님의 천태종 개창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천태종 개창에 대한 의문은 1986년 허흥식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10여 년 논쟁을 거듭해 왔다.

“의천은 직접 천태종 개창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의천 입적 후에 그를 추종하던 일부 승려들에 의해서 개창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허 교수의 입장. 여기에 1997년 정회욱 선생이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의천은 어디까지나 천태교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전하겠다는 서원을 한 것이지, 천태종을 개창하겠다는 의지를 본인은 아니다”는 주장을 펴며 가세했다. 그후 의천의 천태종 개창 의지와 그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됐다.

## 화엄종과 전제왕권

신라 중대(中代)의 정치, 사회, 문화, 사상 등 여러 방면에 끼친 화엄사상의 영향은 적지 않다. 그런만큼 당시 화엄사상에 대한 학자들의 이견 또한 분분하다. 1991년 김상현 선생에 의해 ‘화엄종과 전제왕권의 관련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제기되면서 화엄사상이 전제왕권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의상을 비롯한 화엄종 스님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는지 하는 등의 문제가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됐다.

“통일신라시대의 화엄사상은 지배층인 귀족사회에서 환영받았다” 의상의 화엄사상은 신라 중대 전제 왕권을 옹호했다”는 김두진(1981), 이기백(1982) 선생의 주장에 대해 김상현 선생은 <신라화엄사상사연구>(1991)를 통해 “의상은 평등사상을 내세워 왕이 주는 전장과 노비를 거절했다. 법계(法界)로 집을 삼고 바닷대로 농사짓는 그의 수행생활은 곧 법신의 해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자부했다”며 “의상의 행적이나 사상에서 특수 신분층을 옹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견을 제기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opia.com)

## 역사이론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역사이론은 ‘물든 바. 한 치의 어둠도 없이 전라했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전자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허운 스님의  
**방편개시**  
方便開示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여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40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원주(泉州)에서 태어나 1959년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淸末) 이후 쇠퇴해진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매(三歩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였고, 56세 때 찾간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었다 한다. 특히 스님은 의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86 변형 330쪽 / 값 6,000원